

‘수원’ 지역 교재 구성의 통합 사회적 접근

- ‘인간 사회와 환경’ 교실 수업 방안-

심광택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1. 서론

200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사회와 심화 선택(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이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현대 인간 사회와 환경의 구조를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교육부, 2001: 86-88).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은 사회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국사 영역도 포함하여 사회과 전체의 통합 수업을 해야만 하는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 담당 교사의 입장은 매우 난처할 것이다. 이를테면, 통합 사회과 수업에서 기술의 민주화에 의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금융의 민주화에 의해 개인이 다른 국가의 부채를 소유하여 자본이 장·단기적으로 이동하고, 정보의 민주화(인터넷)에 의해 개인이 세계를 보는 시야와 방법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화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인식하게 하고, 정치적 단일성과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조화를 통해 민족 의식과 세계 시민 의식 즉, 다중 시민 의식(multidimensional citizenship)을 어떻게 탐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현장 교육 연구는 교육 과정을 고시하여 교과서를 개발-보급한 다음,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하여 교육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업 교재와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교육적 상황에 의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의 교실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현대 사회 현상의 무엇을 수업 내용으로 선정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조직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할 것인가? 수업 설계 과정부터 국사 영역도 포함하여 사회과 전체의 통합을 지향하는 ‘인간 사회와 환경’ 교실 수업에 전거가 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의 성격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은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이다.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한 후에는 선택(일반 선택, 심화 선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13개 기본 교과와 관련한 일반 선택 과목을 24단위 이상 학습하게 되는데, 사회 관련 과목으로는 ‘인간 사회와 환경’이 유일하다. 따라서 본 과목의 신설 목적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사회’와 여러 심화 선택 과목들을 연계시키는 데 있다. 국민 공통 교과인 ‘사회’의 경우 국사 영역이 사회(지리, 일반사회, 세계사) 과목에서 분리된 것과는 달리, ‘인간 사회와 환경’의 내용 선정과 조직은 국사 영역도

포함하여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을 학제적으로 통합한다.

우리 나라 제7차 교육 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과는 지리, 역사, 제 사회 과학 등에서 사회과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 학습 방법과 절차, 학습 자료 등에 관한 요소들이 학문적 개념이나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사회과 교육 내용의 체계를 이루어 사회과 교육 과정의 운영 및 단원의 학습 전개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합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해되도록 하고 있다(류재명·서태열, 1997: 22, 교육부, 1998: 237-239, 교육부, 1999: 249-252). 이것은 미국의 NCSS가 제시한 사회과 표준안처럼(NCSS, 1994: 21-30) 사회과의 여러 학문에서 나온 기본 개념과 주제들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다학문적 통합을 뜻한다.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의 학제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은 세 교과에 공통적인 개념, 주제, 문제, 이슈, 탐구 기술, 고등 사고력 등을 추출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학문적 통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존재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을 갖는 사회 안에 처해 있고, 차별된 공간 구조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며,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사회 현상을 시·공간 축과 다른 현상과의 상호 연관성에서 이해하려면, 공간 규모를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구분하든가, 지역 사회-국가 사회-세계 사회 공간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회 집단 안에서 사회적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파악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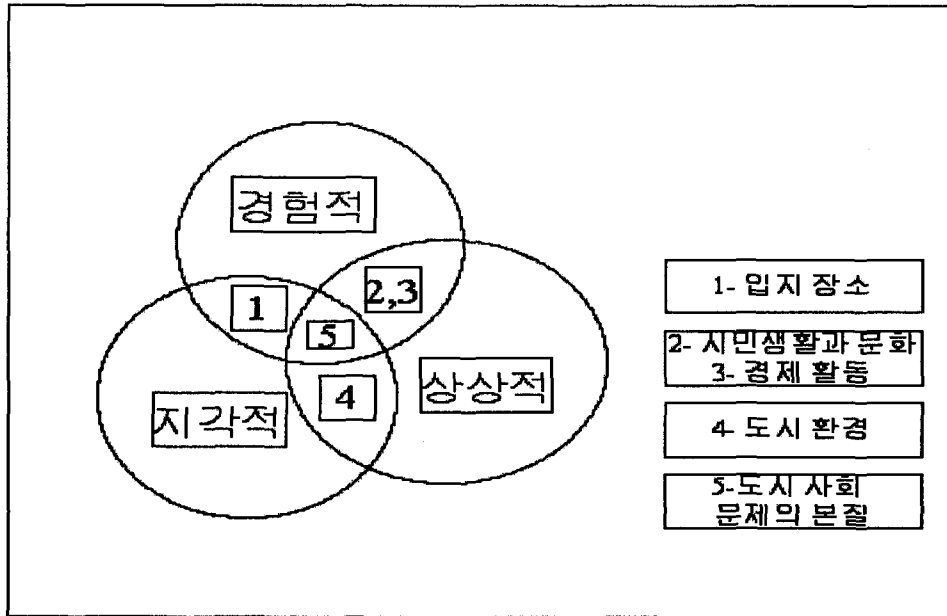
사회 구조적 변화에 의해 사회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식론적 배경(경험적·지각적·상상적)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¹⁾ 예를 들면, 도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학습자가 주로 경험적·지각적으로 인식하는 입지와 장소, 경험적·상상적으로 인식하는 시민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 그리고 지각적·상상적으로 인식하는 도시 환경 계획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달라진 도시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참고).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에서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을 학제적으로 통합하려면, 학습자의 인식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시민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 입지와 장소, 도시 환경 계획 측면에서 세 교과에 공통적인 개념, 주제, 문제, 이슈, 탐구 기술, 고등 사고력 등을 추출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다.

사회 현상(문제)의 성격은 공간 축과 시간 축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 체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통합 사회 과로서 ‘인간 사회와 환경’ 은 공간축(위치, 장소, 장소내 관계들, 이동, 지역)의 장소성, 시간축(감정 이입, 시간 감각, 사료 분석, 인물 학습, 정당화 및 판단)의 역사 이해, 사회 현상(인권 존중, 합리성,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사회 정의의 실현)의 다중 시민 의식(보편적 가치 체계 포함)을 시공간 축과 사회 현상과의 상호 연관성 하에서 종합하여 즉, 과거-현재-미래, 지역-국가-세계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1)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을 “경험되는 것, 지각되는 것, 상상되는 것”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material spatial practices)은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공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에 걸쳐 발생하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흐름, 이동, 상호 작용 등으로 경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은 신호나 기호, 부호, 지식 모두를 포함하며, 그것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이해하면서 지각된다. 재현의 공간(spaces of representation)은 공간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의미나 가능성을 떠올리게 해주는 정신적 발명품(부호, 신호, 공간적 담론, 이상향적 계획, 상상의 경관, 상징적 공간, 인공 환경, 그림, 박물관 등 구체적 구성물 포함)으로 상상된다(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박영민 역, 1994,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Pub., 270-274).



<그림 1> 인식론적 배경에 의한 도시 사회 구조의 변화 파악

3.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의 목표

사회과는 지식이나 이해와 같은 인지적 측면보다도 의지, 책임감, 충성심과 같은 정의적 측면, 가치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시민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의 유능한 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측면에 중점을 둔 정치적 통일체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통합한 것이 사회과 목표로서의 시민 의식이다(손병노·권오정·송양섭, 1996: 374). 시민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이다(교육부, 1997: 114). 시민 의식은 참·거짓과 관련된 사실 문제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옳고·그름과 관련된 가치 문제인 것이다. 사회과 교육의 실제에서는 학습자가 사살 문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한 다음, 가치 상대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가운데 올바른 시민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과 내용은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태도, 형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집단의 바람이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 기구, 사회 구조, 메카니즘 등을 파악해야만 한다. 즉, 사회과에서 학습자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 사회 인식의 함양을 도모해야 한다(森分孝治, 1997: 56). 그러한 사실 문제에 착안한다면 사회 인식의 발전을 지향하여, 측면에서 학습자의 사회 인식이 발전되어 가도록 도와 주는 교과로서 사회과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인식의 형성, 사회 인식의 성립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형성·성립이란 용어에는 도달이란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 인식에는 정답이라든가 도달점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고, 끊임 없이 정답과 도달점을 바꾸어 가면서 학습자의 사회 인식을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藤岡信勝, 1991: 3). 사실 문제와 관련된 사회 인식의 발전이란 부분 목표를 간과하고, 주

로 가치 문제와 관련된 시민성 함양이란 부분 목표가 제7차에 걸친 교육 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목표로서 당연시되고 있다.

사회과의 기본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상호 의존적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공선을 위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다(NCSS, 1994: 3).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사회과의 기본 목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모든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교육부, 1997: 115).

이러한 사회과 목표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민족 의식에 대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과의 내용은 모든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미지의 공간(space)은 인간의 다양한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 친밀한 장소(place)로 바뀌는 데, 이때 낯설은 추상적인 공간은 의미로 가득찬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주민들은 의식과 관행의 일관성(장소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함께 인식하고 그들의 삶과 더불어 장소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향토 의식은 민족 의식의 기초를 이루며, 인류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족 의식은 시민 의식과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²⁾

예를 들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의 90% 이상은 90년대에 접어들어 전국 각지에서 유입하여 75% 이상이 서울로 출근하며 분당을 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지만, 분당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함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의 분점리(웅기점)와 당우리(당집모퉁이)가 합쳐져 분당(盆唐)이란 지명이 새롭게 생겨났고,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나룻배를 이용하여 서울에 숯을 만들어 공급했던 숯골이란 마을과 탄천(炭川)이란 지명과 그 주변에서 100여 기가 넘는 지식요군이 집단으로 형성되었고, 과거 400년 이상 한산 이씨라는 동족이 모여 살았던 사실을 분당 주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민 의식부터 생각한다.

구성원 상호간의 유대감이 약하고 익명성이 강한 도시 공간에서 범위가 빈발하는 현실이 보여 주듯이 공동체를 특징짓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기초되지 않은 시민 의식은 결과적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가족 의식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에서의 향토 의식이 뿌리내릴 수 없듯이, 향토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민족 의식,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시민 의식(citizenship) 함양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해 본 만큼 알고서 느끼며, 느끼는 만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성과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인식 없이는 집단이나 개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³⁾

따라서, 통합 사회과로서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의 목표는 학습자가 장소성과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인식의 발전을 지향하고 다중 시민 의식(향토 의식, 민족 의식, 시민 의식)을 길러 우리 나라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

2) 국제 교육을 주장하는 대부분 학자들은 국제교육(Global Education)이 민족교육(Nationalistic Education)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한다는 점에 동의한다(Murry, R.N., 1987, *Children and Social Students*, Harcourt Brace Javanovich Pub., 298; 최용규, 1994, "국제화 시대의 민족의식 교육", 사회과교육 27,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52).

3)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유기적인 연관, 그에 기초하여 시민 사회가 개별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통합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민주주의 강조가 경쟁논리의 강화로만 귀결되는 것을 막고, 민족주의적 대응이 무분별한 집단주의에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명규, 1998, "한국의 시민 사회와 민족주의", 계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70-84).

4. '수원' 사례 지역 교재 구성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의 4단원-지역화와 지방 자치(지역화와 지역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대상으로 사회과의 모든 영역을 통합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의 확대를 지양하고,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 분량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18세기 후반과 20세기 후반이라는 시간 축과 수원-한국-세계라는 공간 축을 바탕으로 인식론적 배경에서 입지와 장소, 시민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수원 지역의 교재화를 시도하여 학습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두 개의 시간적 층위에 입지와 장소, 시민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 도시 환경적 접근으로 지역화, 장소 마케팅, 문화 상품 개발, 지역 내 총생산, 주민 참여 제도 등 지리, 역사, 일반 사회 교과와 기본 개념의 추출이 가능하고 학습 내용을 학제적으로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교재 구성 방법은 '인간 사회 환경'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다시 규정할 수 있는 전거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14.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Ⅲ)-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37-239.
-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49-252.
-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86-88.
- 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박영민 역, 1994,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Pub.), 270-274.
- 류재명·서태열, 1997, "제7차 지리 교육 과정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환경교육* 5(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2.
- 박명규, 1998, "한국의 시민 사회와 민족주의", *계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70-84.
- 손병노·권오정·송양섭, 1996, *교원양성대학의 국민학교 사회과교육학 교재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374.
- 최용규, 1994, "국제화 시대의 민족 의식 교육", *사회과교육* 27,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52.
- 藤岡信勝, 1991, *社會認識教育論*, 日本書籍, 3.
- 森分孝治, 1997, "社會科½嚴選で基礎基本をどう見直か", *教育科學社會科教育*, 448, 明治圖書, 56.
- Murry, R.N., 1987, *Children and Social Students*, Harcourt Brace Javanovich Pub., 298.
- NCSS, 1994,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21-30.